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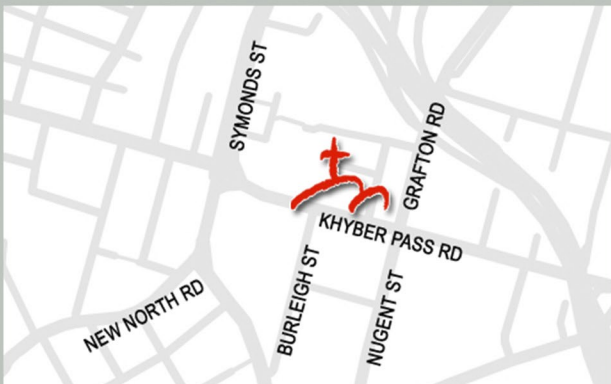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교회 창립 20주년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는 몇 가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사경회  
일시: 2019년 7월 19-21일 (금, 토, 주일) 시간: 저녁 7시 30분 (21일은 오후 1시)  
강사: 이은성 목사 (서울 산들 교회 담임, 코스타 강사)
  - 추억의 사진전이 있습니다. (과거 사진, 현재 사진) 준비된 성도는 제출해주세요.
  - 선행 인물을 추천받아 선행 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6월 30일 주일까지 추천 바랍니다. (내용, 대상, 일시 등을 기록)
- 오는 6월 26일 수요일 예배는 2, 3 남선교회 주관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협력하여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권사 기도회가 오전 11시 30분에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
-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 7월 7일(주일)~7월 9일(화) 장소: Orere Point top 10 Holiday Park  
주제: ACTS29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라!)
-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 로투로아에서 일하는 바누아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겨울 옷가지는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1차에 준비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점심에 순두부를 제공한 성도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정관영 장로 (황경임 집사) 가정이 지난 주에 이사했습니다.  
54 Knights Rd, Rothesay Bay, Auckland

[6월 교회 사역]

- 6월 26일 (수) 선교회 주관 예배
- 6월 30일 (주일) 성찬 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고린도전서8:6 인도자
찬송	26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66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덕철 장로
성경봉독	시편 42:1-2 인도자
찬양대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이태한 목사
찬송	540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445장 다같이
축도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기도	한누리 집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2:17
설교	[병든 자는 의원에게] 이태한 목사
찬송	365장
주기도	다같이

[6/7월 기도 순서]

- 6월 23일 (주일) / 손조훈 집사
- 6월 26일 (수) / 선교회
- 6월 30일 (주일) / 정관영 장로
- 7월 3일 (수) / 김선화 집사

청년예배

금주기도	황보준호 형제
다음주일	마현정 자매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7월 7~9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예배 봉사자]

- 예배 안내 / 손조훈, 고미현
-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6/16  
21권 24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14

## MISSION

이번 주는 중앙아시아 K국 강 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햇빛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데 우리 모두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구 드립니다.

### 학원

5월 초에 영어 시험(IELTS)을 친 두 학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기대하는 점수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쉬웠지만 짧은 시간에 준비한 시험이라는 걸 부모님들도 아시기에 모두가 결과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5월 말이 되면서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봄비던 학원은 방학이 되면서 다소 조용합니다. 저는 새로운 개인 수업이 더 생겨서 별 차이 없이 분주합니다. 이번 여름 동안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교회

5월은 공휴일이 며칠 있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쉬면서 여유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성의 날에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남성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몇몇 자매들이 A 도시에 가서 참석한 컨퍼런스도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저와 A 선교사님은 함께 가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참석한 사람들 모두 어떤 시간이었는지 각자 나누면서 뜨거워졌다는 간증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요사이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싶습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우리를 강건케 하길 기도합니다.

### 나하르 드림

#### 기도 제목

1. 개인 수업이 많아졌는데 여름 동안 학생들이 저를 통해 즐겁게 배우고 영어실력이 늘도록.
2. M과 함께 수업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주님을 나눌 수 있도록.

## PRAYER

1. 성령의 능력 안에 보호받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2. 사경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시간과 여건을 잘 계획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열방의 선교사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육으로 강건하도록.

## SHARING

오가는 두 시간, 말씀 묵상을 감사하며.

해밀턴에서 오클랜드로 매 주일 아침 서둘러 집을 나서 두 시간 정도 달리면 교회에 도착하는 조금은 부담이 되는 거리이지만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고대하는 설레임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오클랜드에서 살아온 지 25년 만에 해밀턴으로 내려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고향과도 같은 오클랜드를 떠날 때는 가벼운 긴장과 불안한 마음이었으나 이제 차츰 주변의 꽃이며 나무들이 정겹게 느껴지고 익숙한 건물을 보며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월의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정이 해밀턴으로 이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였는데 오클랜드의 비즈니스가 정리되고 해밀턴에 새로운 샵을 오픈하게 되어 살아야 할 집도 정하지 못한 채 이삿짐을 싣고 내려왔습니다. 또한 오클랜드를 떠날 때에는 거리로 인한 교회의 출석이 큰 부담이었으나 갈보리교회를 꼭 섬기겠다는 다짐을 하였기에 오고 가는 길이 말씀에 대한 묵상의 시간으로 즐거운 운전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고국을 떠나서 외로운 타향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기에 어디에 정착하던 그곳은 타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며 아브람에게 나그네의 삶을 명하셨습니다. 그 후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으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분향을 향하여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그곳이 오클랜드 건 해밀턴이 건 명하시는 그곳에서 쫓대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14절에서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심 같이 어디에 살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과 온 열방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광희 장로

## 금주의 암송말씀

요한복음 7:37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